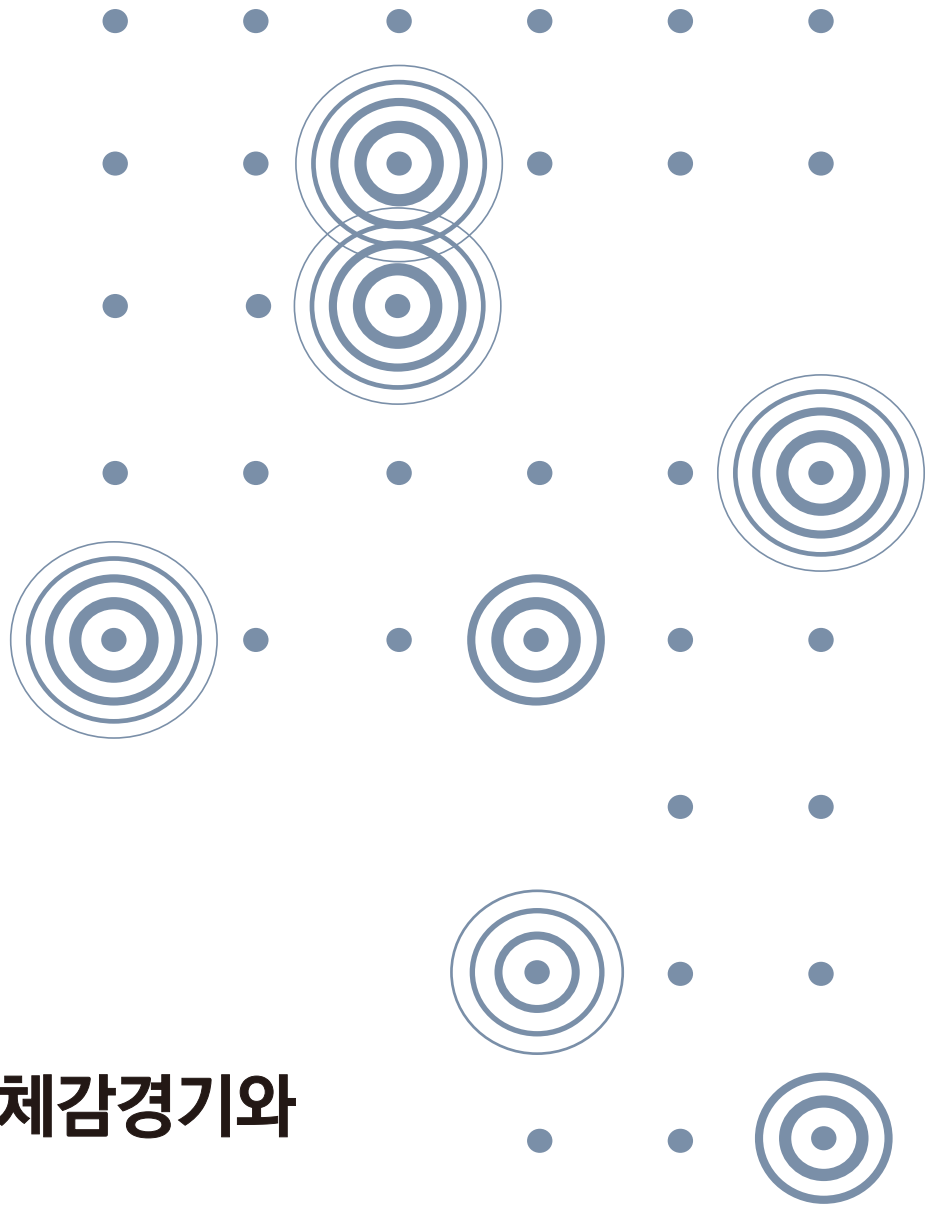


정책리포트

제303호 2020. 6. 29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비대면 경제

최 봉

선임연구위원

오승훈

연구원

————— **서울연구원 정책리포트**는 서울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고
서울의 도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도시 전반의 다양한 정책 이슈를 발굴하여 분석함으로써
서울시의 비전 설정과 정책 수립에 기여하고자 작성된 정책보고서입니다.

제303호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비대면 경제

발행인 서왕진

편집인 최 봉

발행처 서울연구원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

ISSN 2586-484X

발행일 2020년 6월 29일

※ 이 정책리포트의 내용은 연구진의 견해로 서울특별시의 정책과 다를 수 있습니다.

2/4분기 서울시 소비자 체감경기와 비대면 경제

최 봉 선임연구위원
02-2149-1059
cbong@si.re.kr

오승훈 연구원
02-2149-1355
shoh0507@si.re.kr

요약	3
Ⅰ.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4
Ⅱ.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7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비대면 경제	19
부록: 2020년 2/4분기 주요 조사결과	24

요약

서비스업생산은 소폭 증가, 제조업생산은 큰 폭 하락

2020년 1/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09.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하였다. 「제조업생산지수」는 73.9로 전년 동월 대비 21.7% 크게 하락하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14.2%를 기록하였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와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2020년 4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7.5%, 13.7% 하락했다.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하였다. 2020년 5월 중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1.4% 감소한 503만 3천 명이며,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보다 0.5% 감소한 85만 8천 명을 기록했다.

서울시민 체감경기지수는 전 분기보다 상승

서울시민의 체감경기를 대표하는 「소비자태도지수」는 2020년 2/4분기 86.1로 전 분기 대비 3.3p 증가했다. 「소비자태도지수」의 구성요소인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1.3p 하락한 72.4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5.9p 상승한 91.3을 기록했다.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3.8p 상승한 51.7, 「미래경기판단지수」는 전 분기 대비 9.5p 상승한 77.3으로 조사되었다. 「현재소비지출지수」는 95.3으로 전 분기 대비 6.5p 하락하였으며, 「미래소비지출지수」도 전 분기 대비 8.6p 하락한 81.3을 기록했다. 서울시민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상승하였으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하락하였다.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 「물가예상지수」는 모두 전 분기보다 하락하였다.

서울시민 3/4이 비대면 소비활동 경험,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소비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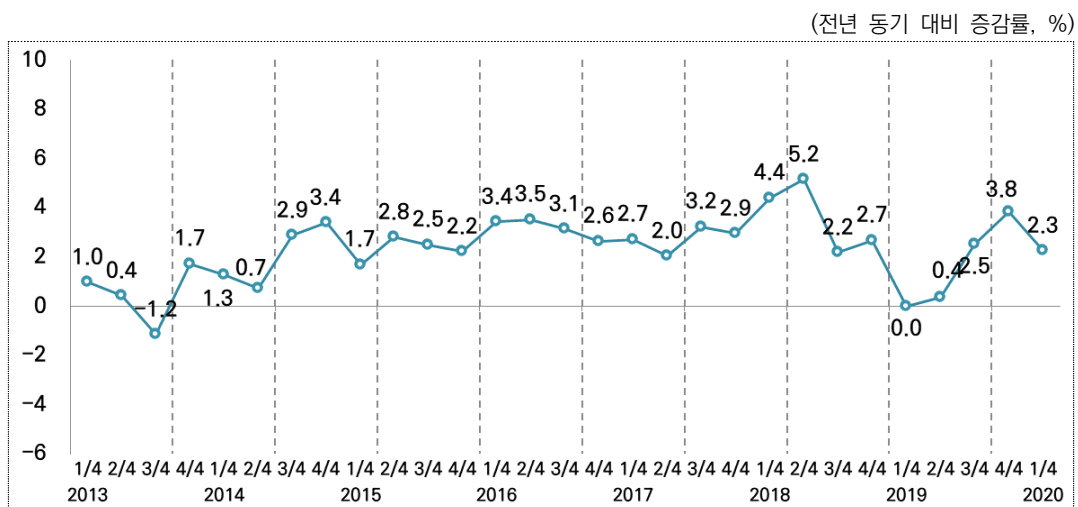
서울시민의 비대면 소비활동 경험 비율은 74.7%로 조사되었다. 비대면 소비활동 유경험자는 주 평균 2.3회 비대면 소비활동을 하고 있으며, 주로 ‘음식’과 ‘쇼핑’ 분야에서 비대면 소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비대면 방식을 선호하는 분야는 ‘오락’(70.7%), ‘금융’(70.4%), ‘쇼핑’(60.1%) 순으로 조사되었다. 비대면 소비활동을 선호하는 이유로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을 가장 많이 꼽았다. 비대면 소비활동 유경험자는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대체로 비대면 소비를 지속할 것이라고 응답(80.1%)하였으며, 무경험자 역시 비대면 소비활동 의향(33.6%)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비대면 소비활동이 경제·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응답한 비율은 53.4%로 집계되어 향후 서울시민의 비대면 경제 활성화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1. 최근의 서울경제 여건

서비스업생산은 소폭 증가, 제조업생산은 큰 폭 하락

2020년 1/4분기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2.3% 증가

- 2020년 1/4분기 서울 「서비스업생산지수」는 109.0으로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
 - 1/4분기 「서비스업생산지수」는 전년 동기 대비 2.3% 증가했으며, 전 분기(3.8%)보다 증가 폭 감소
 - ‘부동산업’(24.5%)이 큰 폭으로 상승했으며, ‘금융 및 보험업’(15.4%),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6.8%) 등 순으로 증가
 - 반면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은 -33.8%를 기록해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운수 및 창고업’(-17.8%),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13.6%), ‘숙박 및 음식점업’(-10.9%), ‘교육 서비스업’(-6.4%) 등도 크게 하락
- 2020년 4월 중 서울의 「제조업생산지수」는 73.9로 전년 동월 대비 21.7%의 큰 폭 하락
 - 「제조업생산지수」는 2020년 4월 전년 동월보다 21.7% 감소하며 2018년 12월부터 17개월 연속 전년 동월 대비 마이너스 기록
 - 2019년 7월 전년 동월 대비 -1.2%를 보인 이후 감소율이 점차 커지는 추세로,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이 -14.2%를 기록하며 하락세 지속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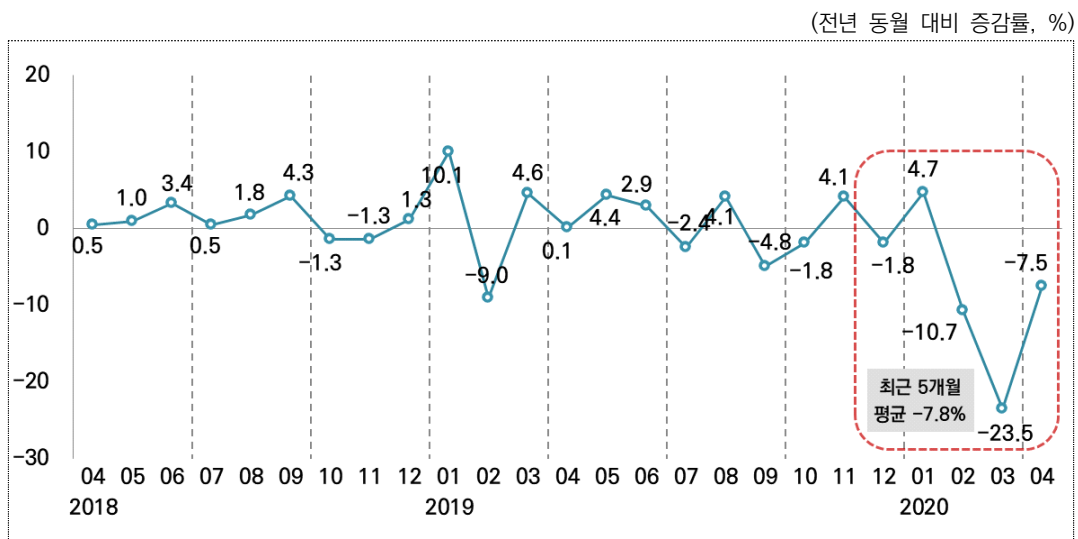
[그림 1] 서울의 서비스업생산지수 증감률(불변지수)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¹⁾

1) 2019년 1월 공표 시 연쇄지수 작성방법에 따른 최근 가중치 변경 및 연간보정, 계절조정 작업으로 2000년 이후 시계열이 변경되었다. 최근 분기나 월별 수치에는 잠정치(p)가 포함되어 추후 수정될 수 있으며, 매년 1분기나 1월분 통계 공표 때 연간보정 때문에 최근 몇 개월 자료가 수정될 수 있다.

대표적 내수지표인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큰 폭 하락

- 2020년 4월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²⁾는 88.1로 전년 동월 대비 7.5% 하락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2020년 1월 4.7% 증가한 이후 2월부터 하락세가 지속되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7.8% 기록
- 부문별로 보면, 4월 중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13.7% 감소한 반면,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5.8% 증가
 - 「백화점 판매액지수」는 87.2로 전년 동월 대비 크게 하락하였으며, 기준치 100을 하회하는 등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 -11.5% 기록
 - 「대형마트 판매액지수」는 89.7로 전년 동월 대비 5.8% 증가하며 2020년 2월부터 지속된 하락세에서 상승세로 전환했으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0.1%
 -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백화점 판매액지수」, 「대형마트 판매액지수」 모두 기준치 (100) 이하인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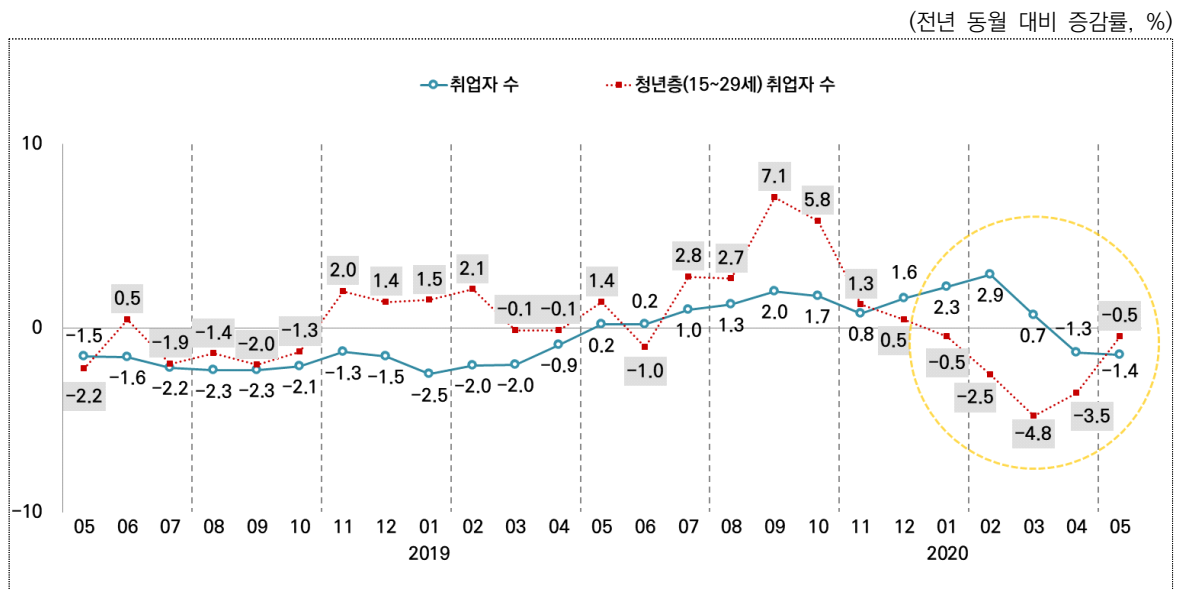
[그림 2] 서울의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 증감률(경상금액)

자료: 통계청, 서비스업동향조사

2)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를 비롯해 제조업생산지수, 서비스업생산지수는 모두 기준연도가 2010년에서 2015년으로 바뀌면서 변경 이전의 수치가 바뀌었다. 대형소매점 판매액지수는 2010년 기준에는 대형마트에 대형할인점, 면세점, 아웃렛이 포함되었지만, 2015년 기준부터 대형마트에서 면세점과 아웃렛이 제외되었다.

전체 취업자 수와 청년층 취업자 수는 작년 같은 달보다 감소

- 2020년 5월 서울의 전체 「취업자 수」³⁾는 503만 3천 명으로 전년 동월(510만 7천 명)보다 1.4% 감소
 - 전년 동월 대비 기준으로 본 전체 「취업자 수」는 2019년 5월부터 2020년 3월까지 11개월 연속 증가하였으나, 4월부터 하락세로 전환하며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0.6%를 기록
- 2020년 5월 서울의 「청년층 취업자 수」는 전년 동월(86만 2천 명)보다 0.5% 감소한 85만 8천 명으로 조사
 - 전년 동월 대비 「청년층 취업자 수」는 -0.5%의 증가율을 보여 전체 취업자 수 증가율보다 하락 폭이 낮았으나, 최근 5개월 평균 증감률은 -2.3%를 기록
 - 「청년층 취업자 수」는 2019년 10월부터 전년 동월 대비 6개월 연속 감소하였으나, 2020년 4월과 5월에 각각 -3.5%, -0.5% 증가율을 보이며 하락폭 감소
- 전체 취업자 수와 청년층 취업자 수 모두 감소한 것으로 조사



[그림 3] 서울의 취업자 수 증감률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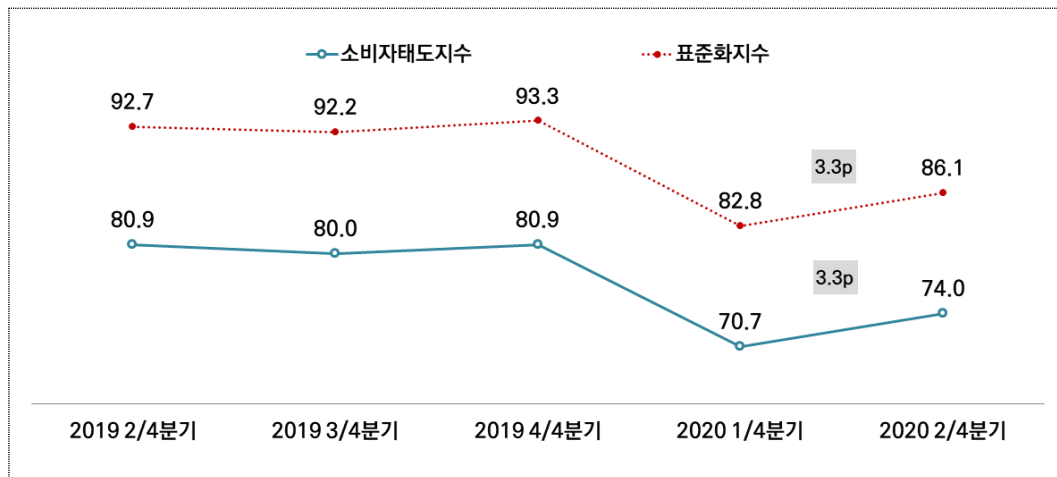
3) 고용통계는 2015년 인구총조사(등록센서스) 결과를 토대로 소급 작성된 추계인구의 변경을 반영하여 2018년 1월에 2000년 7월부터 2017년 12월까지의 자료를 변경하였다.

II. 서울의 2/4분기 소비자 체감경기

I 서울시민 체감경기지수는 전 분기보다 상승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소폭 상승

- 2020년 2/4분기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는 표준화지수⁴⁾ 기준 86.1로 전 분기 대비 3.3p 증가
 - 「소비자태도지수」의 표준화지수는 전 분기보다 3.3p 증가한 86.1 기록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19.4p 올라 가장 크게 상승
 - 연령별로는 4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상승했으며 60대가 7.9p로 가장 많이 상승
- 2/4분기 이후 올해 서울시민의 「소비자태도지수」는 당분간 기준치(100)를 밑돌 전망
 - 「소비자태도지수」의 추세는 지속적으로 민생과 직결된 경기상황, 고용지표 등에 따라 움직이는 경향을 보여 왔기에,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경기 및 고용 침체, 소비위축 등이 이어진다면 기준치(100)에 미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며, 코로나19 확산세 둔화 여부, 긴급재난지원금 등 정책효과, 실물경제 회복 체감정도 등에 따라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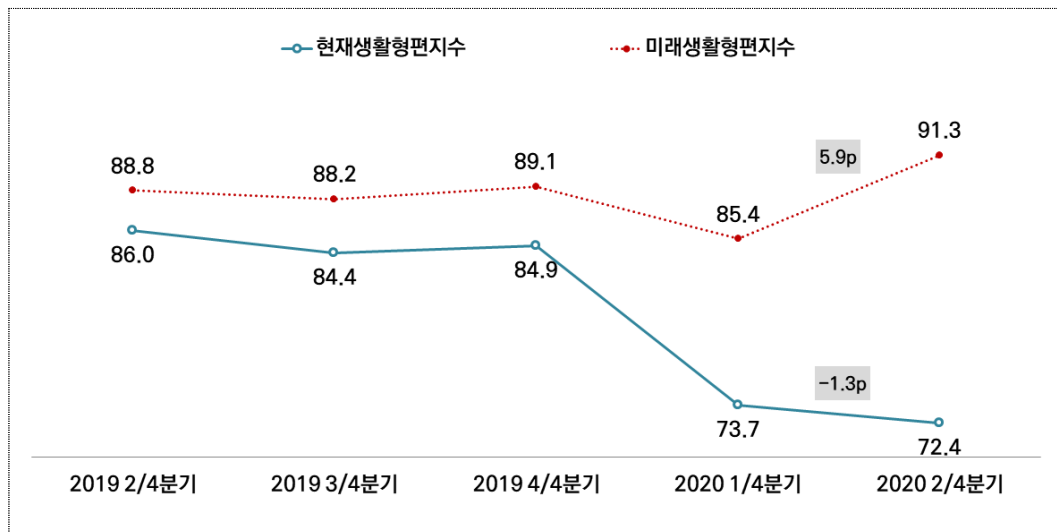


[그림 4] 서울의 소비자태도지수

4) 표준화지수란 개별지수(5개 항목)의 평균값과 표준편차를 이용하여 표준화한 후 단순 평균을 산출하는 방식이다. 연도별로 조사되는 시계열의 결과값이 성별, 가구 수, 직업 등의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라 분기마다 변동이 있기 때문에 표준화한 값을 구한다.

전 분기 대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하락,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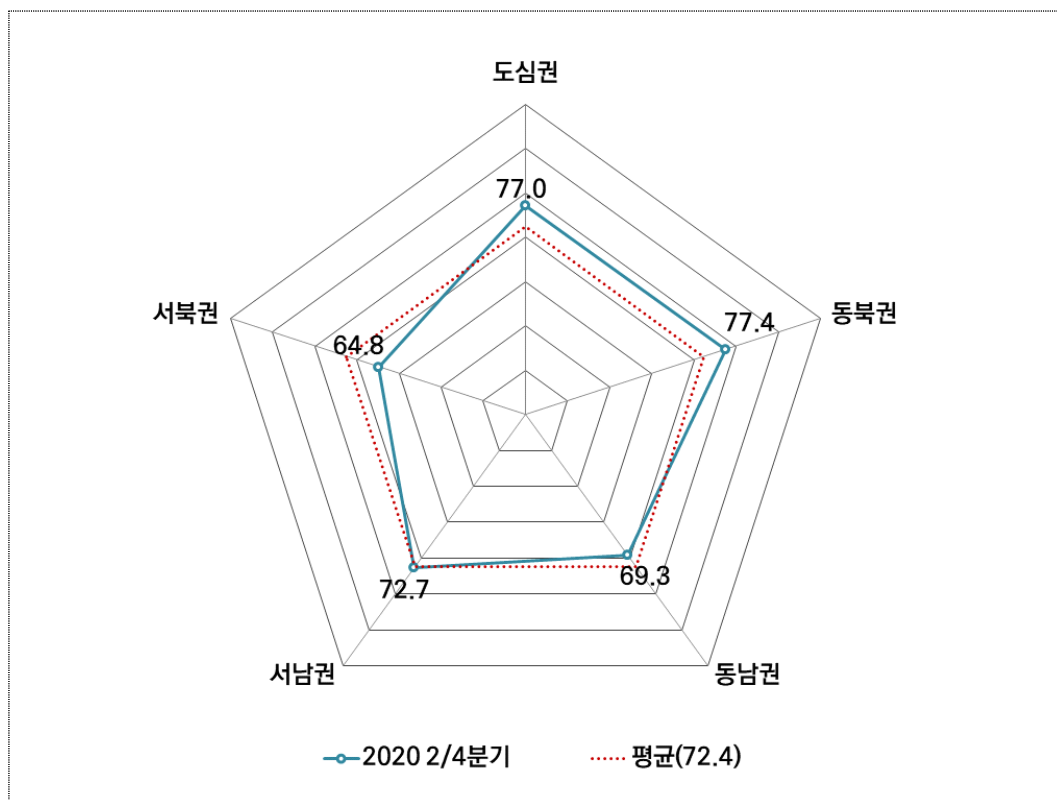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보다 1.3p 하락한 72.4이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전 분기 대비 5.9p 상승한 91.3을 기록
 - 소득계층별로 살펴보면 연 가구소득 2,400만 원 미만 가구의 「현재생활형편지수」, 「미래생활형편지수」가 각각 19.3p, 33.3p 증가해 상승 폭이 가장 큰 편
 - 연령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30대 이하, 40대에서 하락한 반면, 50대, 60대에서는 증가하였으며, 「미래생활형편지수」는 모든 연령에서 증가한 가운데 60대의 상승 폭이 16.4p로 가장 큰 편
- 1년 후 가구 생활형편이 악화될 것으로 본 주된 이유 1순위는 가계소득 감소
 - ‘가계소득 감소’가 47.2%로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경기 불황’(20.4%)으로 나타나 ‘경기 불황’이 1순위였던 전 분기와 차이
 - 그다음은 ‘물가 상승’(11.2%), ‘가계부채 증가’(7.1%), ‘지출비용 증가 예정’(5.6%) 등의 순으로 응답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가계소득 감소’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난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도 ‘가계소득 감소’가 모든 연령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특히 50대에서 57.1%로 높은 것으로 조사



[그림 5] 서울의 생활형편지수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동북권이 제일 높고, 서북권이 가장 낮게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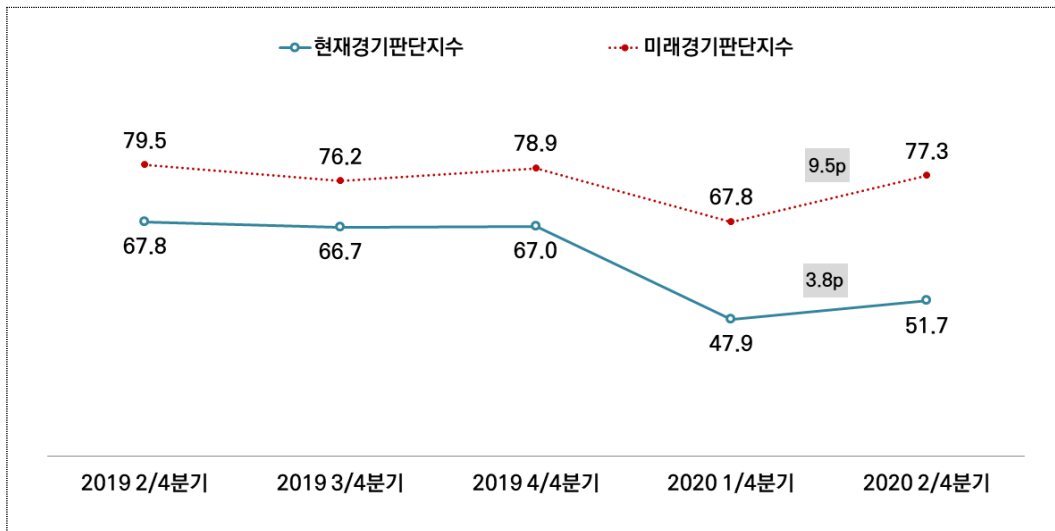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는 동북권이 77.4로 가장 높게 조사
 - 그다음은 도심권(77.0), 서남권(72.7), 동남권(69.3), 서북권(64.8) 순으로 조사
- 2020년 2/4분기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에서 서북권이 2020년 1/4분기 대비 6.4p 내려 가장 크게 하락
 - 서북권이 6.4p 내린 가운데 동남권과 서남권도 각각 4.4p, 1.3p 하락
 - 반면 도심권(6.3p)과 동북권(1.4p)은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



[그림 6] 서울의 권역별 현재생활형편지수

현재경기판단지수·미래경기판단지수 모두 전 분기보다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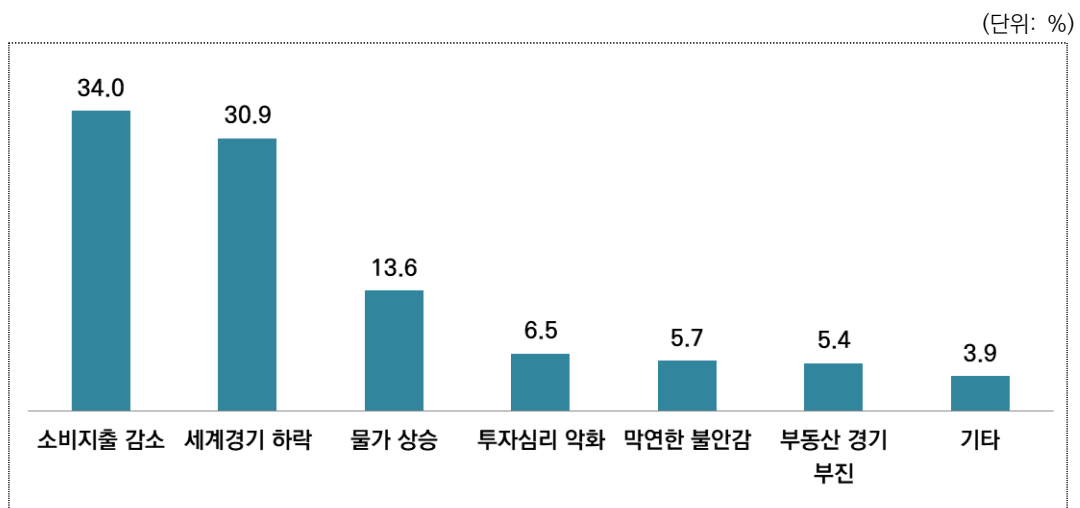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서울의 「현재경기판단지수」는 51.7로 전 분기 대비 3.8p 상승
 - 2020년 1/4분기에 대폭 하락한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020년 2/4분기에 다시 상승으로 전환하였으나, 50대 초반으로 여전히 낮은 수준 기록
 - 「현재경기판단지수」는 서울의 제조업 생산 하락 폭을 서비스업 생산 증가가 상쇄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판단
 - 연 가구소득별 「현재경기판단지수」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17.8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하였고,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는 2.5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별 「현재경기판단지수」는 가구주 연령이 높아질수록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며, 40대 (-3.2p)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한 것으로 조사
- 2020년 2/4분기 서울의 「미래경기판단지수」는 77.3으로 전 분기 대비 9.5p 상승
 - 지난 분기 대폭 하락한 「미래경기판단지수」는 2020년 2/4분기에 다시 상승으로 반전
 - 연 가구소득별 「미래경기판단지수」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상승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2,400만 원 미만 가구가 28.4p 올라 가장 많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
 - 연령별 「미래경기판단지수」는 모든 연령대에서 전 분기 대비 상승하였으며, 60대가 15.0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



[그림 7] 서울의 경기판단지수

향후 경기를 부정적으로 보는 주된 이유는 소비지출 감소, 세계경기 하락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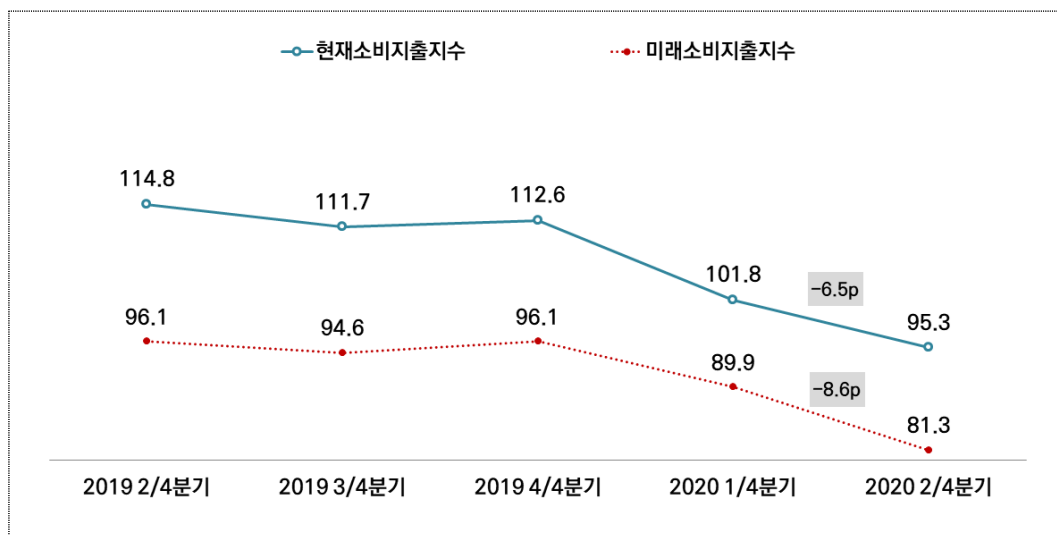
-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현재보다 나빠질 것으로 보는 이유는 주로 ‘소비지출 감소’, ‘세계경기 하락’, ‘물가 상승’ 등으로 조사
 - ‘소비지출 감소’가 34.0%로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그다음은 ‘세계경기 하락’(30.9%), ‘물가 상승’(13.6%) 순으로 조사
- 소득수준과 연령대별 조사에서 대체로 ‘소비지출 감소’를 가장 큰 악화 전망 이유로 지목
 - 연 가구소득별로는 7,200만 원 이상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소비지출 감소’가 30%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특히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소비지출 감소’가 44.0%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반면,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와 7,200만 원 이상 가구는 ‘세계경기 하락’이 각각 36.2%, 34.4%로 ‘소비지출 감소’를 제치고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50대를 제외한 모든 연령대에서 ‘소비지출 감소’가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50대에서는 ‘세계경기 하락’이 37.2%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2020년 5월 서울지역의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0.0%로 전월(0.3%)과 전년 동월(0.7%)보다 낮은 것으로 조사
 - 서울지역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 기준): 2019년 1월 1.5% → 2월 0.9% → 3월 1.1% → 4월 0.3% → 5월 0.0%



[그림 8] 1년 후 서울지역 경기가 악화될 것으로 전망한 이유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와 미래소비지출지수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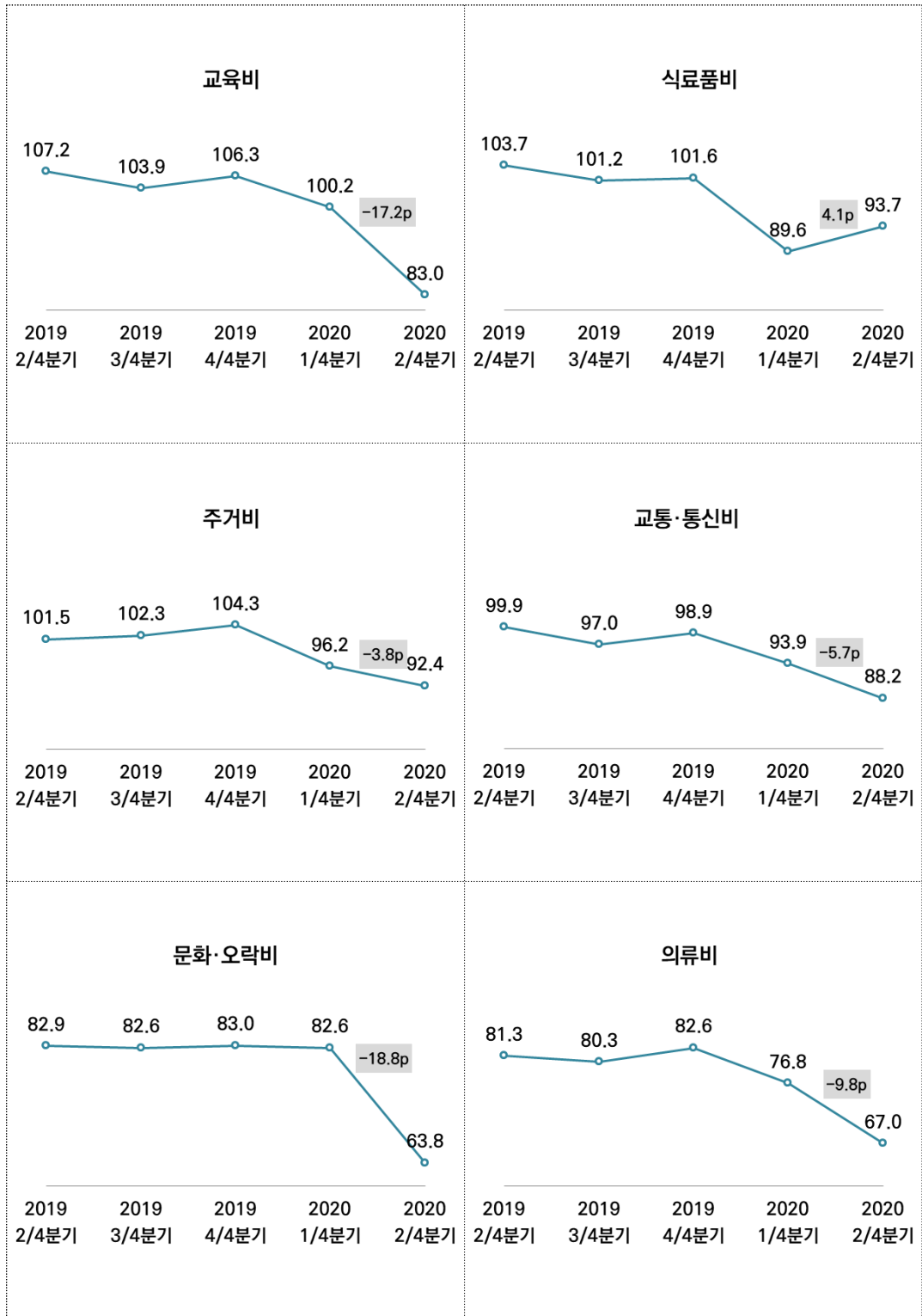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서울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95.3으로 전 분기 대비 6.5p 하락
 - 지난 분기 큰 폭으로 하락하였던 「현재소비지출지수」는 2/4분기에도 6.5p 내리며 하락세 지속
 - 연 가구소득별로 모든 가구에서 「현재소비지출지수」가 하락하였으며, 특히 7,2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14.9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한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 본 「현재소비지출지수」는 전 연령대에서 떨어진 가운데 60대 가구가 -9.8p로 가장 크게 하락
- 2020년 2/4분기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81.3으로 전 분기보다 8.6p 하락
 - 연 가구소득별로 본 「미래소비지출지수」는 2,400만 원 미만 가구를 제외한 모든 가구에서 하락한 가운데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가 전 분기 대비 12.5p 내려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 본 「미래소비지출지수」는 40대 가구가 전 분기 대비 11.4p 내려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그다음은 60대 가구(-8.7p), 30대 이하 가구(-8.3p), 50대 가구(-6.0p) 순으로 조사



[그림 9] 서울의 소비지출지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식료품비를 제외한 모든 품목이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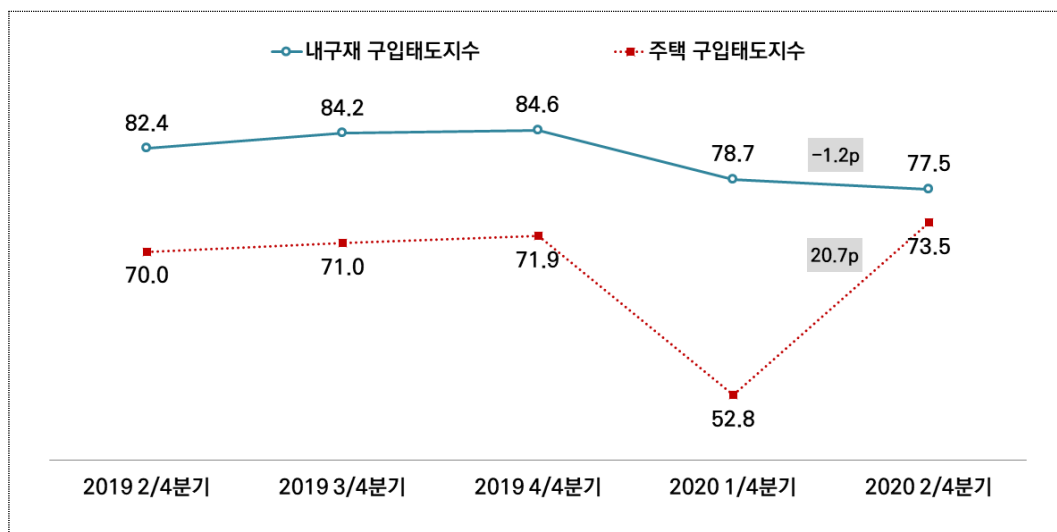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미래소비지출지수」는 대부분 품목이 하락
 - ‘문화·오락비’ 지수는 전 분기 대비 18.8p 내려 전 품목 중에서 하락 폭이 가장 컸으며, 수치(63.8) 또한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
 - ‘문화·오락비’에 이어 전 분기 대비 하락 폭이 큰 품목은 ‘교육비’(-17.2p), ‘의류비’(-9.8p), ‘교통·통신비’(-5.7p), ‘주거비’(-3.8p) 순으로 조사
- ‘식료품비’가 유일하게 「미래소비지출지수」 상승
 - ‘식료품비’의 「미래소비지출지수」는 전 분기 대비 4.1p로 상승해 전 품목 중에서 유일하게 상승하였으며, 수치(93.7) 또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그림 10] 품목별 서울의 미래소비지출지수

서울시민의 내구재 구입의사는 하락, 주택 구입의사는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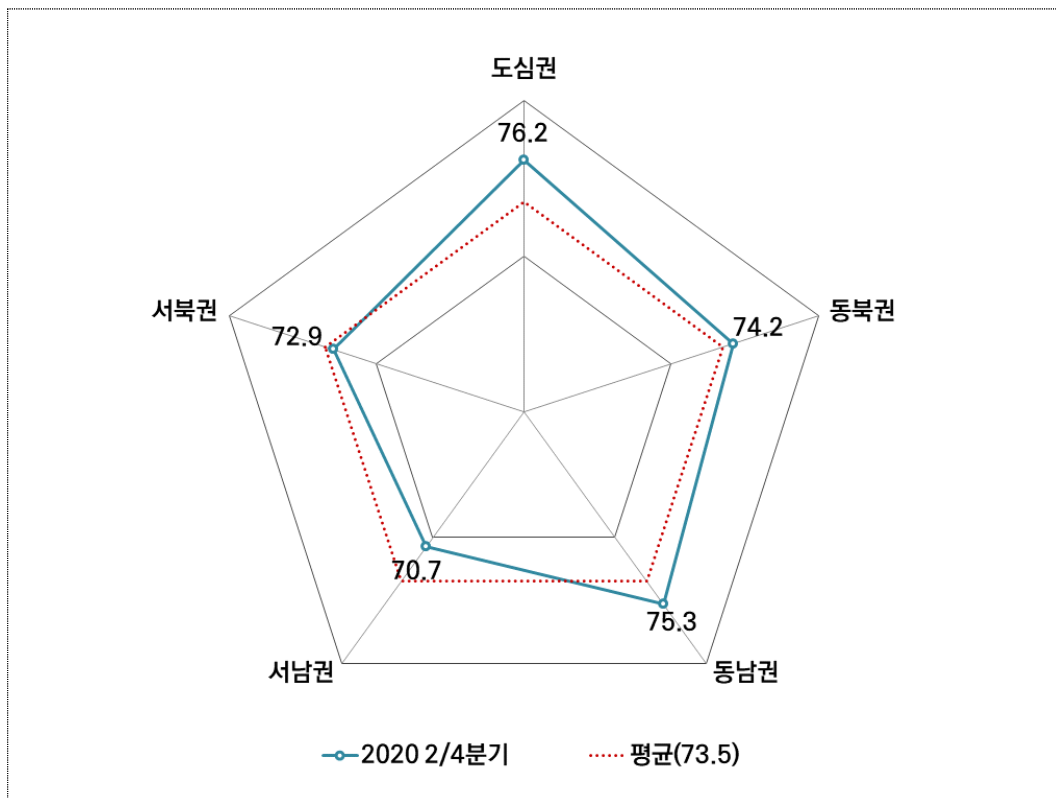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보다 1.2p 내린 77.5로 하락세 지속
 - 연 가구소득별로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내구재 구입태도지수」가 전 분기 대비 5.0p 내려 하락 폭이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반면,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3.7p 상승했으며,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는 0.8p 소폭 상승한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60대에서 「내구재 구입태도지수」가 전 분기 대비 12.1p 내려 가장 많이 하락하였으며, 40대, 50대 역시 하락한 것으로 조사
 - 반면, 30대 이하의 「내구재 구입태도지수」는 전 분기 대비 3.2p 오르며 연령대에서 유일하게 상승한 것으로 조사
- 2020년 2/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73.5로 전 분기 대비 20.7p의 큰 폭 상승
 - 연 가구소득별로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모든 가구에서 상승하였으며, 2,400만 원 미만 가구의 상승 폭이 28.7p로 가장 큰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 본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40대가 22.9p 올라 가장 크게 상승하였으며, 그다음은 60대(20.7p), 30대 이하(20.1p), 50대(19.5p) 순으로 상승 폭이 큰 것으로 조사
 -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2020년 1/4분기 들어 큰 폭으로 하락했다가 2/4분기에 상승세로 전환
 - 2020년 5월 서울의 주택종합 매매가격 지수는 108.7로 장기간 정체 지속(2019년 1월 108.6 → 2월 108.7 → 3월 108.9 → 4월 108.8 → 5월 108.7)



[그림 11] 서울의 내구재와 주택 구입태도지수

서울시민의 권역별 주택 구입의사는 모든 권역에서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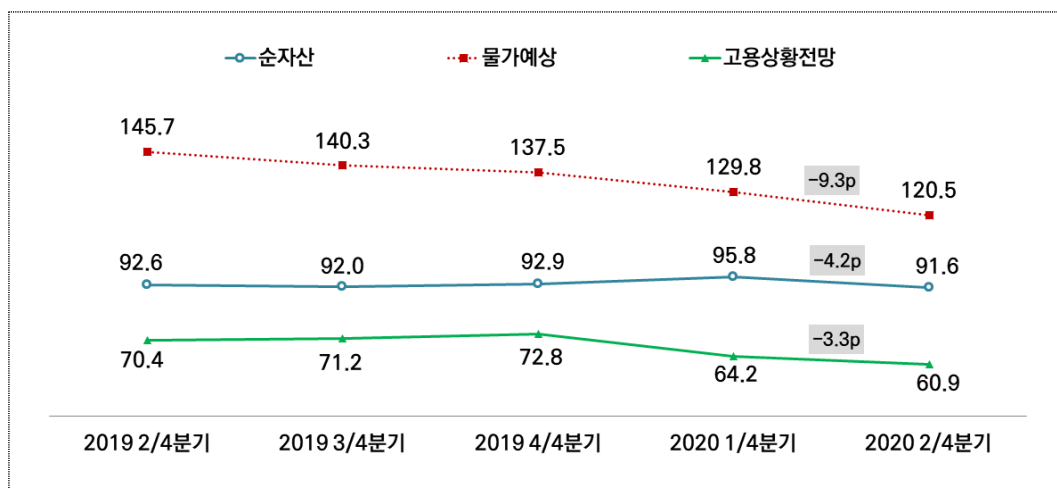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동남권이 전 분기 대비 가장 큰 폭(28.2p)으로 상승
 - 동남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는 75.3으로 전 분기 대비 28.2p 오르며, 전 권역에서 가장 상승 폭이 큰 것으로 조사
 - 그 외에 동북권이 전 분기 대비 20.8p 상승한 74.2로 나타났으며, 도심권 역시 23.1p 상승하며 76.2를 기록해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
- 서남권의 「주택 구입태도지수」 상승이 가장 저조한 편
 - 모든 권역의 「주택 구입태도지수」가 상승해 70대를 회복한 가운데 서남권이 전 분기 대비 15.5p 올라 상승 폭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조사



[그림 12] 서울의 권역별 주택 구입태도지수

순자산지수와 고용상황전망지수, 물가예상지수 모두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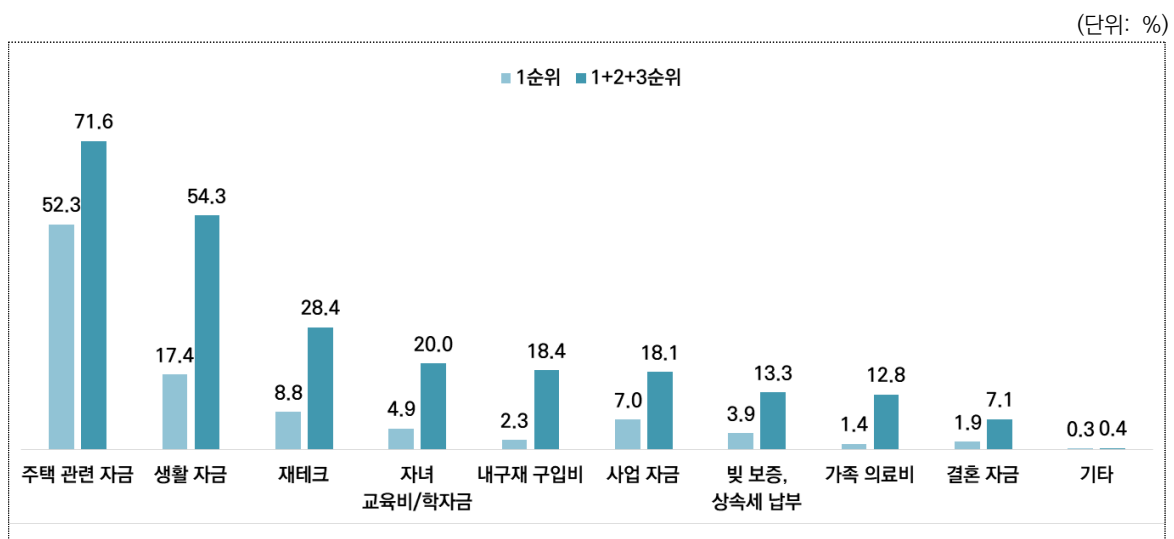
- 2020년 2/4분기 「순자산지수」는 91.6으로 전 분기 대비 4.2p 하락
 - 가계의 순자산이 증가한 이유로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이 30.0%로 가장 많았고, 그다음은 ‘부채가 줄었다’(29.0%), ‘금융자산이 늘었다’(25.4%) 등의 순
 - 연 가구소득별로 살펴보면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은 2,400~3,600만 원 미만 가구가 38.1%로 가장 많은 반면, 2,400만 원 미만 가구와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는 ‘부채가 줄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37.5%, 32.0%로 ‘소득이 늘었다’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
 - 연령별로는 30대 이하와 40대에서 ‘소득이 늘었다’는 응답 비율이 각각 42.1%, 26.3%로 높은 반면, 50대와 60대는 ‘부채가 줄었다’가 각각 40.8%, 37.8%로 가장 높게 조사
- 2020년 2/4분기 「물가예상지수」는 120.5로 전 분기 대비 9.3p 하락
 - 「물가예상지수」는 2018년 3/4분기 이후부터 7분기 연속 하락하였으며, 모든 가구소득 계층과 연령대에서 하락한 것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16.9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
 - 연령별로는 50대에서 전 분기 대비 19.0p 낮아져 가장 큰 폭으로 하락
- 2020년 2/4분기 「고용상황전망지수」는 60.9로 전 분기보다 3.3p 하락
 - 「고용상황전망지수」는 2020년 1/4분기에 이어 하락세 지속
 - 연 가구소득별로는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전 분기 대비 10.8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한 반면, 2,400만 원 미만 가구는 11.2p 올라 유일하게 상승
 - 연령별로는 40대가 8.3p 낮아져 가장 크게 하락하였으며 30대 이하(-7.8p), 50대 (-0.4p) 역시 하락한 반면, 60대는 9.3p 올라 유일하게 상승



[그림 13] 서울의 순자산지수, 물가예상지수, 고용상황전망지수

서울지역의 가계부채 보유 가구 비중은 전 분기보다 상승

- 2020년 2/4분기에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가구는 조사 대상 가구의 57.5%로 전 분기 대비 6.4%p 증가
 - 연 가구소득별로는 6,000~7,2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가계부채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63.7%로 가장 높게 조사
 - 연령별로는 40대가 62.7%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50대(59.3%), 30대 이하(58.0%), 60대(48.4%) 순으로 조사
 - 가계부채를 상환하고 있는 가구의 연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은 19.8%로 전 분기 대비 2.5%p 소폭 상승⁵⁾
 - 가계부채의 상환 형태는 '원리금 상환'이 67.1%로 가장 많고, 그다음은 '이자만 상환'(29.3%), '상환 안 함'(3.6%)의 순으로 조사
-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는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1순위 기준으로 '주택 관련 자금'(52.3%)이 가장 많고, 그다음은 '생활 자금'(17.4%), '재테크'(8.8%), '사업 자금'(7.0%), '자녀 교육비/학자금'(4.9%) 등의 순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대부분 소득계층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가운데, 2,4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생활 자금' 비중이 29.6%로 '주택 관련 자금'과 동률을 기록
 - 연령별로는 40대에서 '주택 관련 자금'이 54.5%로 가장 높게 조사
 - 1~3순위 기준 역시 '주택 관련 자금'과 '생활 자금'이 각각 71.6%, 54.3%로 가장 높았으며, '재테크'(28.4%)와 '자녀 교육비/학자금'(20.0%)도 높은 수준



[그림 14] 가계부채의 주 사용용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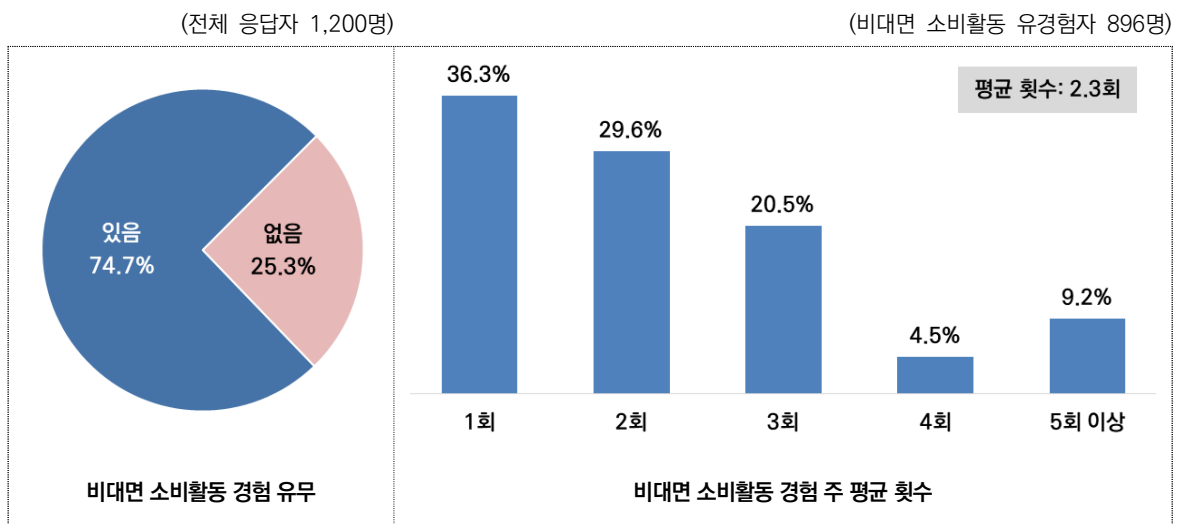
5) 2019년 4/4분기까지는 월 평균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하였으며, 2020년 1/4분기부터는 연 소득 대비 부채 상환 비율로 조사하였다.

Ⅲ. 시민 관심 경제 이슈: 비대면 경제

Ⅰ 서울시민 3/4, 비대면 소비활동 경험

서울시민의 74.7%가 비대면 소비활동을 경험한 것으로 응답⁶⁾

- 비대면 소비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4.7%인 것으로 조사
 - 비대면 소비활동에 대해 74.7%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으며, 경험이 없다고 응답한 비율은 25.3%에 불과
 - 연 가구소득별로 비대면 소비활동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비율은 7,200만 원 이상 가구가 81.3%로 가장 높은 반면,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가 71.4%로 가장 낮게 조사
 - 연령별로는 40대가 80.7%로 비대면 소비활동 경험이 가장 많았으며, 60대가 72.1%로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
- 비대면 소비활동 횟수는 주 평균 2.3회인 것으로 조사
 - 비대면 소비활동 유경험자는 주 평균 2.3회 비대면 소비활동을 하는 것으로 조사
 - 주 평균 횟수 응답 비율은 1회(36.3%), 2회(29.6%), 3회(20.5%), 5회 이상(9.2%), 4회(4.5%) 순으로 분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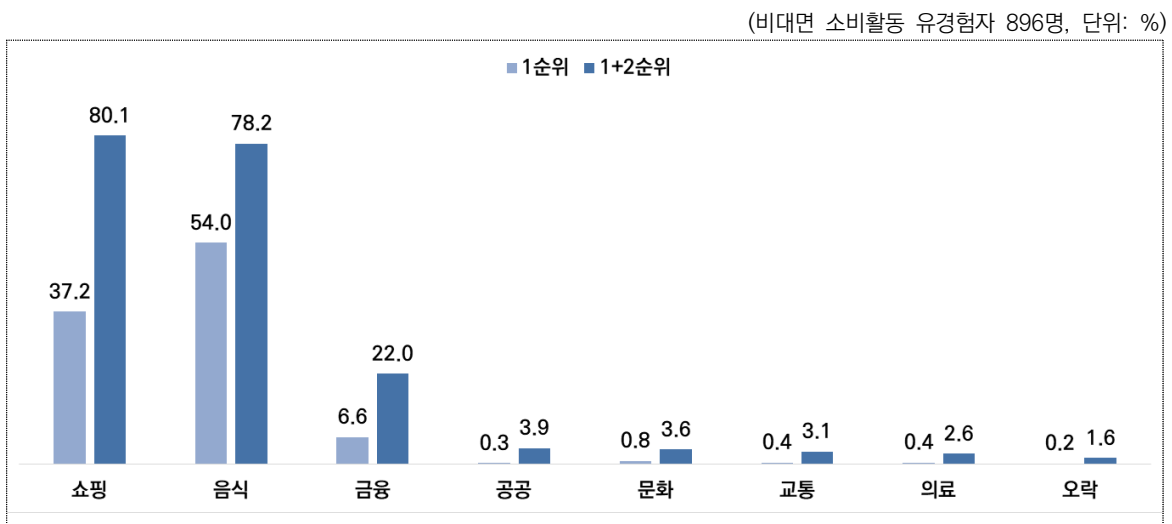


[그림 15] 비대면 소비활동 경험 유무 및 주 평균 횟수

6) 비대면을 의미하는 언택트는 contact란 단어에서 부정의 의미를 가진 'un'을 붙인, '접촉하지 않는다'는 뜻의 신조어이다. 비대면 소비는 소비자가 판매자와 직접 대면하지 않고 비대면을 통해 구매 활동 및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을 뜻한다.

비대면 소비활동은 ‘음식’, ‘쇼핑’ 분야에서 많은 편

- 비대면 소비활동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비대면 소비활동 경험 분야를 조사한 결과, 1순위 기준 ‘음식’(54.0%), ‘쇼핑’(37.2%), ‘금융’(6.6%) 순으로 높게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 1순위 기준 모든 소득계층에서 ‘음식’이 가장 높게 나왔으며, ‘쇼핑’은 4,800~6,000만 원 미만 가구에서 44.4%로 상대적으로 높게 조사
 - 연령별로는 1순위 기준 60대를 제외한 연령층에서 ‘음식’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는 ‘쇼핑’(47.5%)이 가장 높게 조사
 - 1~2순위 기준으로는 ‘쇼핑’(80.1%), ‘음식’(78.2%), ‘금융’(22.0%) 순으로 비대면 소비활동이 높은 것으로 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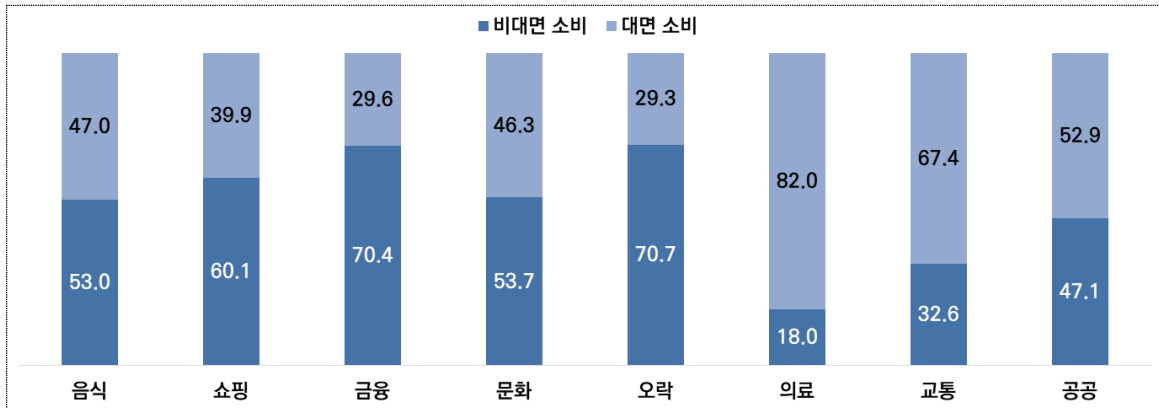


[그림 16] 비대면 소비활동 경험 분야

‘오락’, ‘금융’, ‘쇼핑’ 분야에서 비대면 방식 선호도 높은 편

- 비대면 소비활동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분야별 비대면 소비활동 비중을 조사한 결과, ‘오락’(70.7%), ‘금융’(70.4%), ‘쇼핑’(60.1%) 등 순으로 비대면 방식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조사
 - 그밖에 ‘문화’, ‘음식’ 분야에서 비대면 소비활동의 비중이 각각 53.7%, 53.0%로 대면 방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반면, ‘의료’, ‘교통’, ‘공공’ 분야 활동에서는 대면 방식의 비중이 각각 82.0%, 67.4%, 52.9%로 비대면 방식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비대면 소비활동 유경험자 896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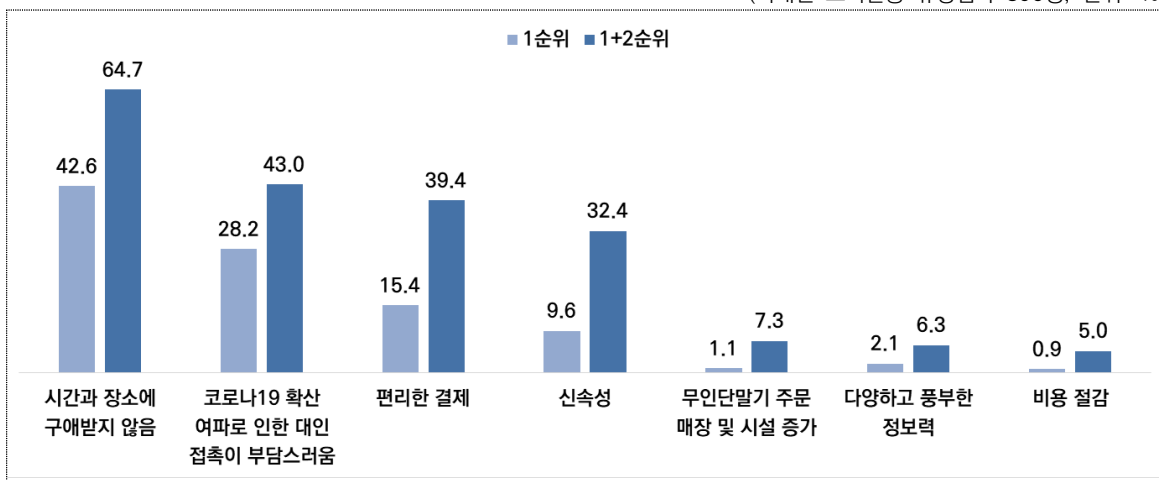


[그림 17] 비대면 소비활동 및 대면 소비활동 비중

비대면 소비활동 선호 이유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을 꼽아

- 비대면 소비활동을 하는 이유에 대해 묻은 결과 1순위 기준으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42.6%), '대인 접촉 부담'(28.2%), '편리한 결제'(15.4%) 순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층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3,600~4,800만 원 미만 가구에서는 '편리한 결제'가 26.7%로 상대적으로 높은 편
 - 연령별로는 모든 연령층에서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이 가장 높은 가운데, 30대 이하에서 '편리한 결제'가 21.7%로 상대적으로 높은 것으로 조사
 - 1~2순위 기준으로도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음'(64.7%)이 가장 높았으며, '코로나 19 확산 여파로 대인 접촉이 부담스러움'(43.0%), '편리한 결제'(39.4%) 순으로 조사

(비대면 소비활동 유경험자 896명,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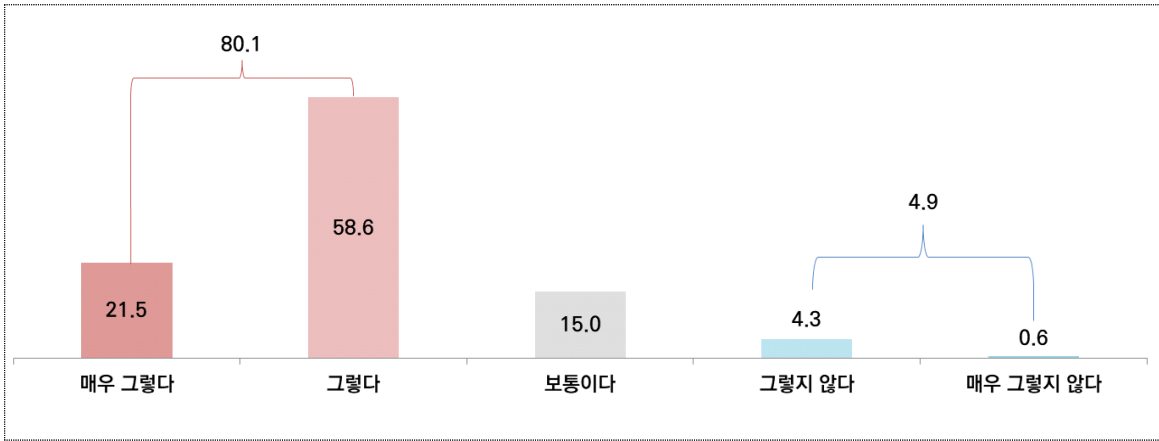


[그림 18] 비대면 소비활동을 하는 이유

코로나19 종식 이후에도 비대면 소비 활성화 지속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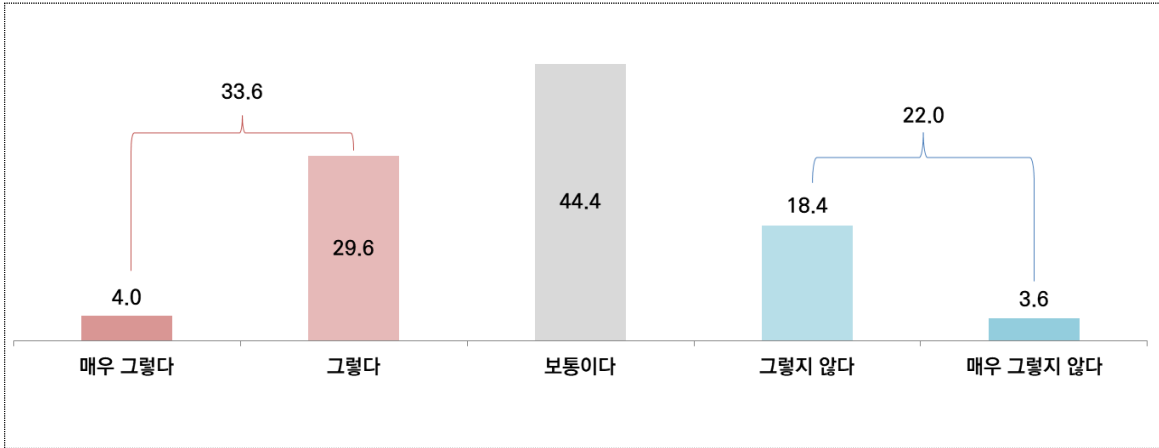
- 비대면 소비활동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 소비활동 의향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80.1%로 높게 조사
 -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은 4.9%에 불과
 - 연령별로는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0대에서 84.4%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60대가 71.5%로 가장 낮게 조사
- 비대면 소비활동 미경험자의 33.6%가 추후 비대면 소비활동 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
 - 비대면 소비활동 미경험 응답자를 대상으로 향후 비대면 소비활동 의향을 묻는 질문에 그렇다(매우 그렇다+그렇다)고 응답한 비율이 33.6%로 그렇지 않다(매우 그렇지 않다+그렇지 않다)고 응답한 비율(22.0%)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비대면 소비활동 유경험자 896명, 단위: %)



[그림 19] 코로나19 종식 이후 비대면 소비활동 지속 의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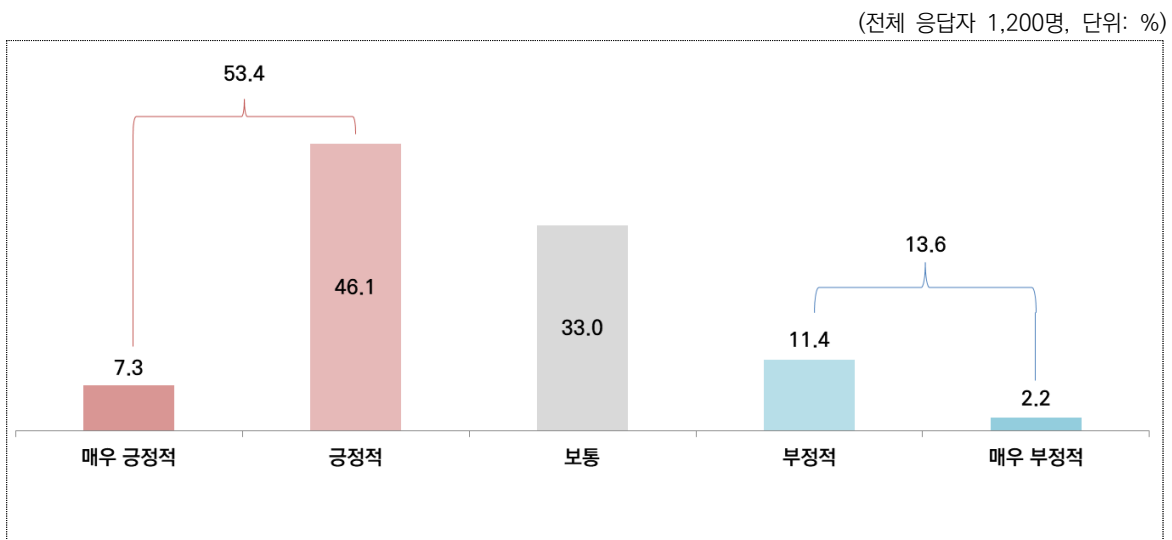
(비대면 소비활동 미경험자 304명, 단위: %)



[그림 20] 향후 비대면 소비활동 의향

서울시민은 비대면 소비활동 및 서비스가 경제·사회에 긍정적일 것으로 예상

- 비대면 소비활동 및 서비스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 긍정적(매우 긍정적+긍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이 53.4%로,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13.6%)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
- 연 가구소득별로는 모든 소득계층에서 비대면 소비활동 및 서비스가 경제·사회에 긍정적(매우 긍정적+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을 앞서는 것으로 조사
- 특히 7,200만 원 이상 가구에서 긍정적(매우 긍정적+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60.8%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 가구주 연령별로도 전 연령에서 긍정적(매우 긍정적+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부정적(매우 부정적+부정적)일 것이라는 응답보다 높으며, 특히 30대에서 긍정적(매우 긍정적+긍정적)일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55.6%로 가장 높은 것으로 조사



[그림 21] 비대면 소비활동 및 서비스가 경제·사회에 미치는 영향

부록: 2020년 2/4분기 주요 조사결과

- 이 연구는 서울 기준의 분기별 조사이며, 한국은행은 전국 기준의 월간 조사
 - 한국은행의 '2020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에 따르면, 5월 소비자심리지수는 77.6으로 전월 대비 6.8p 상승
 - 분기별 조사라는 차이점 외에 2017년 조사부터 소득 구간 등의 사례 수를 조정한 것도 결과에 반영되어 한국은행 지수와 차이

[부록 표 1] 서울지역 소비자태도지수

	소비자 태도*	생활형편		경기판단		구입태도	
		현재 생활형편	미래 생활형편	현재 경기판단	미래 경기판단	내구재 구입태도	주택 구입태도
2019년 2/4분기	92.7	86.0	88.8	67.8	79.5	82.4	70.0
2019년 3/4분기	92.2	84.4	88.2	66.7	76.2	84.2	71.0
2019년 4/4분기	93.3	84.9	89.1	67.0	78.9	84.6	71.9
2020년 1/4분기	82.8	73.7	85.4	47.9	67.8	78.7	52.8
2020년 2/4분기	86.1	72.4	91.3	51.7	77.3	77.5	73.5

* 표준화지수 사용

[부록 표 2] 서울지역 소비자 소비지출지수

	소비지출		순자산	고용상황	물가예상
	현재 소비지출	미래 소비지출			
2019년 2/4분기	114.8	96.1	92.6	70.4	145.7
2019년 3/4분기	111.7	94.6	92.0	71.2	140.3
2019년 4/4분기	112.6	96.1	92.9	72.8	137.5
2020년 1/4분기	101.8	89.9	95.8	64.2	129.8
2020년 2/4분기	95.3	81.3	91.6	60.9	120.5

이 조사는 서울지역 표본 1,200가구를 대상으로 매 분기 조사한 결과이며,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pm 2.83\text{p}$ 임(2020년 2/4분기 조사 시점은 2020년 5월 12일~5월 24일)

06756

서울특별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7

02-2149-1234

www.si.re.kr